

# 폭염에 배추 도매가 80% ↑ ...내달도 가격 강세 지속

농촌경제연구원 '엽근채소 수급 전망' 보고서  
배추 10kg 도매가 1만3500원...전망치 28.6% ↑

폭염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면서 여름 배추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8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의 도매가격 오름세는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엽근채소 수급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배추 10kg당 평균 도매가격은 1만3500원 내외로 형성됐다. 이는 평년 도매가격 7550원 대비 78.8% 급등한 수준이다. 지난 1일 농업관측센터가 내놓은 이달 10kg당 평균 배추 도매가격(1만5000원)보다도 28.6% 오른 금액이다.

8월에도 배추 도매가격은 평년(1만2680원)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7월과 8월 출하량이 평년 대비 각각 13.5%, 7.0% 감소

한 영향이다.

실제 노지 봄배추 저장량은 봄배추 작황 부진으로 평년보다 14.6% 감소한 2만5000t으로 집계됐다. 여름 배추 작황 또한 고온 현상 등으로 평년보다 다소 부진했다. 다만 추석 성수기인 8월 중·하순 출하 배추 작황은 고온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팀은 내다봤다.

관측팀은 "7월 중·하순 출하 배추 작황은 7월 상순에 평년보다 4.4도 높은 고온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석회 결핍, 무름병이 발생하면서 작황이 부진했다"며 "8월 상순 출하 예정인 배추 작황은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7월 중·하순 기상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름 무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달 무 20kg당 도매가격은 1만7000원으로 평년(1만1580원)보다 46.8% 상승했다. 전년(1만960원)과 비교하면 55.1%나 가격이 꺾여 떨어졌다.

8월 무 도매가격도 전년(1만1330원)이나 평년(1만5500원)보다 올라갈 전망이다. 노지 봄 무 생산량 감소로 7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17.5% 감소했으며 8월에도 평년보다 2.1% 줄 것으로 예측된다.

7월 상순 노지 봄 무는 충청, 경기 등 주산지의 고온으로 인해 병해 및 생리장해가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평년보다 21.5% 감소했다. 7월 하순 여름 무는 가뭄 영향으로 초기에 생육이 지연됐다. 지난달 말 비가 내리면서 작황이 평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8월 출하되는 여름 무는 생육 초기 집중호우로 작황이 평년보다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다만 관측팀은 추석 성수기인 8월 중·하순에 출하되는 무 작황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양배추의 이달 평균 도매가격은 8kg 기



준 8000원 내외로 평년 동월(4470원)보다 79.0% 올랐지만, 8월에는 평년(7270원)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관측팀은 "7월 양배추 출하량은 생산량 감

소로 평년 대비 12.7% 감소했지만, 8월에는 출하 면적 증가로 평년 대비 4.8%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승호 기자

## 내년 중부세 공시가액비율 80%로 환원 검토

공시가액비율, 文정부서 꾸준히 인상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중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대책 중 하나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중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선으로 되돌리는 것을 기본안으로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현행법에서 중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중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80%로 유지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됐고 올해는 100%까지 올라가게 됐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중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췄다.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과 같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예외적인 조치다.

중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정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이에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해당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비율을 조정해 중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탄력 구간인 중간 수준인 80%를 검토하고 있다"며 "확정 단계는 아니고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반영되면 중부세가 정상화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내년도 중부세 부과 사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설정해 제시했다.

다만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부세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불확실하다. 아울러 내년도 공시가격 상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변경될 수 있다.

김재환 기자

## 올 상반기 국내선 이용객 3718만명...전년보다 19.2% 증가

제주공항 1468만7266명...전년 대비 22.8% ↑



정부의 일상회복 조치에 올해 상반기(1~6월) 김포와 제주 등 국내선 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1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공업계는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 등 감염병 재확산에 여름 성수기 항공승객이 다시 줄어들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한국공항공사의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김포와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3718만154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120만1783명)에 비해 19.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공항이 1468만7266명으로 전년 대비 22.8% 증가하면서 이 기간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포공항 1240만4530명(17.5%), 김해공항 470만2679명(12.1%), 제주공항 158만4605명(3.2%), 광주공항 110만2986명(8.3%)으로 국내공항 대부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국내선 승객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운항편도 증가했다.

올 1~6월까지 국내선 항공편은 총 22만2884편으로 전년 같은 기간 19만9470편과 비교해 11.7%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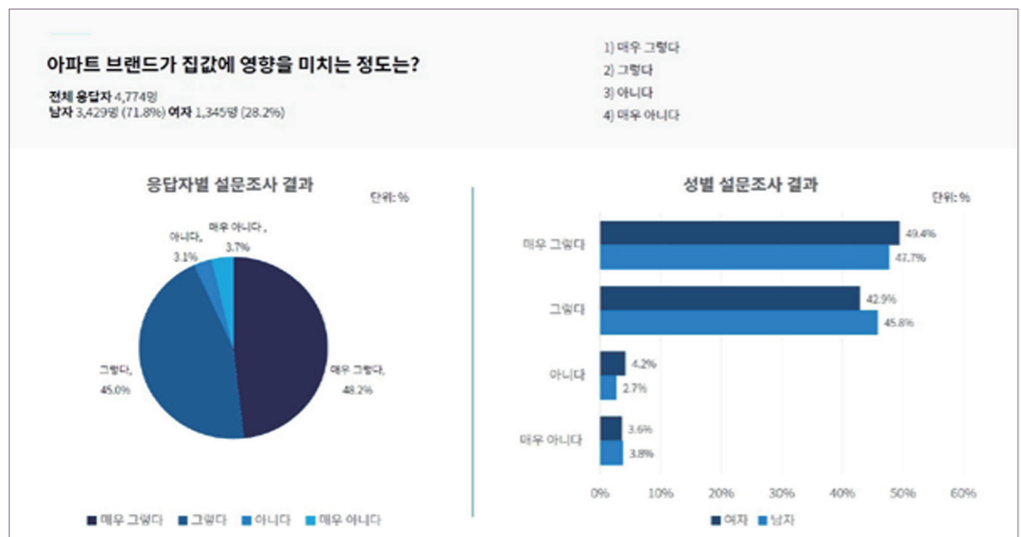
국내선 항공편 중 이동객이 가장 많은 제주공항이 8만4578편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이어 김포 7만3736편(13.5% ↑) 김해도 2만9271편(8.1% ↑)으로 집계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정부가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 코로나19로 급감했던 항공수요가 국제선과 국내선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원숭이 두창 감염 등으로 올 여름 성수기 승객이 감소하지 않을까 항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기간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은 393만740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8만1641명과 비교해 233.2% 급증했다. 항공기 운항편도 같은 기간 6만7965편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최이슬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 "아파트 브랜드, 집값 영향"

뉴시스, 모바일 투표앱 '크라토스'에 조사 의뢰

국민 10명 중 9명이 아파트 브랜드가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모바일 투표 앱 '크라토스'를 통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앱 사용자 4894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선호 브랜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파트 브랜드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8.2%가 '매우 그렇다', 45.0%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1%, 3.7%에 불과했다.

아파트 브랜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응답자 가운데 52.7%가 '인지도(평판)'를 꼽았다. 이어 ▲거주경험(21.9%) ▲품질 및 하자보수(19.4%) ▲입주민 대상 서비스 확대(6.1%) 등

이 뒤를 이었다.

'인지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묻는 질문에 '삼성물산 래미안'이 36.6%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31.0%), GS건설 자이(22.4%), 포스코건설 더샵(10.0%)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파트 구입 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가격(38.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입지여건(34.9%), 브랜드(21.2%), 시공능력(5.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크라토스 모바일 앱 내 투표 참여자 489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신뢰도는 95%, 표본 오차범위는 ±3.0%다.

이슬비 기자

## 전남 상반기 수출액 증가율 전국 1위...32.4% 상승

253억7000만 달러·광물성연료 106.1% 증가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4% 증가한 253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시·도별 증가율은 전남에 이어 대구 31.4%, 인천 26.3%, 울산 25.9% 등의 순이다.

전남은 고유가 지속과 신종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주요 수출 제품인 광물성연료가 92억9000만달러로 106.1% 증가했고, 석유화학제품이 89억8000만달러로 17.1% 늘었다.

또 케이푸드(K-Food)의 꾸준한 인기로 따라 지속적인 현지 수요 증가로 농수산물품은 3억1000만달러(18.4%), 김은 1억2800만달러

(38.5%), 전복은 2400만달러(50.4%), 오리털은 1600만달러(21.0%), 음료는 1600만달러(84.3%), 미역은 900만달러(18.7%), 커피 조제품은 800만달러(164.0%)의 수출을 달성했다.

반면 철강제품은 중국 내 봉쇄 영향으로 제조업 철강 수요가 위축되면서 4.2% 감소한 34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51억9000만달러(1.0%), 미국 20억9000만달러(59.1%), 호주 20억6000만달러(358.4%), 베트남 16억8000만달러(91.6%), 일본 16억달러(13.8%) 순이며,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호주는 국제유가와 에너지 소비량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여행 수요 회복 등에

따른 항공유(제트유) 수출까지 대폭 늘어나 지난해 6월 수출국 12위에서 올해 3위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독일은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이 각각 4.8%, 22.7% 감소해 1억2000만달러를 기록, 10.5%가 줄었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유가 강세 지속 등 연이은 악재 속에서도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보험료, 담보한계 특별보증 확대 지원, 전남도 미주 온라인 전용물 개설 등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각종 해외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 상하농원, 간편한 '상하농원 화덕피자' 3종 출시

조리하기 쉬운 9인치로 출시

상하농원이 가장관편식(HMR) 제품 '상하농원 화덕피자' 3종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품은 풍미를 위해 상하 치즈 공방의 치즈를 사용하고, 48시간 저온 숙성한 상하키친 노하우를 담은 수제 도우 타입으로 쫄깃한 식감을 살렸다.

이 신제품은 ▲치즈 피자 ▲소시지 피자 ▲마르게리타 피자 등 3종이다.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하기 쉬운 9인치로 출시했다.

상하농원 화덕피자 3종은 상하농원 내 파머스마켓과 온라인몰에서 판매한다. 온라인 판매 출시기념 이벤트로 3종 세트 구매 10%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상하농원 관계자는 "치즈, 소시지, 마르게리타 등 피자 3종은 가족과 특별한 매뉴를 즐기고 싶은 날이나 손님 맞이용으로 안성맞춤이다"고 전했다.

오유나 기자

